

## 윤석열 스승 송상현 "정당이 극단주의로부터 민주주의 보호해야"

이기주 kijulee@mbc.co.kr 입력 2021.05.21. 11:42 수정 2021.05.21. 12:54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스승으로 알려진 송상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은 "정당이 민주주의의 문지기로서 극단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이 인내하면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회장은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인 '공정과 상식' 출범식 기조강연에서 "한국의 포퓰리즘은 아직 영향력이 기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만큼 크지는 않다고 판단하지만, 인터넷을 중심으로 점차 불안감과 불신, 적대감이 확산돼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정당이 나를 대표해주지 못한다는 회의감과 냉소 등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정당이 엘리트 정당에서 대중 정당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토론토 진행되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기조 발제에 나섰습니다.

이기주 기자 (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185952\\_34866.html](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185952_34866.html)